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구학회의 발전방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¹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²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³

김찬형¹ · 전양환² · 김재진¹ · 권준수³

Toward Further Progress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Affiliated Academic Societies

Chan-Hyung Kim, MD¹, Yang-Whan Jeon, MD², Jae-Jin Kim, MD¹ and Jun Soo Kwon, MD³

Department of Psychiatry,¹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²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Department of Psychiatry,³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Recently,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KCNP) has been expanded greatly in the number of members as well as the qualities in the area of practice and research. There are also 23 affiliated academic societies : Korean Academy of Psychotherapists, Korean Society for Analytical Psychology, the Korean Psychoanalytic Socie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Art, Kore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iatry,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 Society of Korean Women Psychiatrists,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Hypnosis, the Society for Human Sexuality, Korean Society of Sleep Research, the Korean Society for Psychopathology and Psychiatric Classification, Kore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Korean Psychosomatic Society, Korean Academy of Sleep Medicine,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Korean Academy of Psychiatrists in Alcoholism & Addiction, Korean Academy of Adolescent Psychiatry, Korean Academy Schizophrenia, Korean Society for Depressive and Bipolar Disorders, and Korean Academy of Anxiety Disorders. To further encourage the progress of the KCNP affiliated academic societies, the KCNP planning committee has developed the proposed criteria for assessing the societie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5;44 (4) :420-424)

KEY WORDS : KCNP · KCNP affiliated academic societies.

서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본학회)는 1945년 9월 7일 조선정신신경학회로 창립되어 1955년 6월 4일 학회 명칭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 개칭하였으며,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정신과 영역의 학문적 정통성과 정신과 전문의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구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해오고 있다.^{1,2)} 본 학회의 역할 중 정신의학의 세부 전문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학회의 활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1974년 한국정신치료학회를 시작

으로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 연구학회가 창립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23개의 연구학회가 본 학회에 등록되어 있다.

본 학회의 발전과 함께 전문 연구학회의 발전은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제는 이들 연구학회의 기능을 평가하고 향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03~2005년도 회기의 본 학회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산하 연구학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설정에 지표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 학회 기획위원회 내에 연구학회 발전방향 전략기획팀(Task Force Team)을 두고 연구학회 평가시안을 만들었다.

본고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산하 연구학회의 향후 발전과 본 학회와 연구학회 간의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기획위원회 회의와 워크숍 그리고 2004년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된 연구학회 발

접수일자 : 2005년 6월 1일 / 심사완료 : 2005년 6월 30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Chan-Hyung Kim, M.D.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46-92 Dogok-dong, Kangnam-gu, Seoul 135-720, Korea

Tel : +82.2-3497-3340, Fax : +82.2-3462-4304

E-mail : spr88@yumc.yonsei.ac.kr

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학회의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학회 평가안의 내용과 기준안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학회의 현황 및 문제점

본 학회 산하 연구학회로는 1974년 2월 19일 창립된 한국정신치료학회가 효시이다. 당시의 국내 정신의학의 상황을 보면 생물정신의학이나 정신약물학의 발전은 비록 몇 분의 선각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상태였으며 반면 정신치료분야는 활성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1974년 한국정신치료학회의 창립은 당시 정신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이후 한국분석심리학회(1978년 4월 19일 창립), 한국정신분석학회(1980년 5월 6일 창립), 한국임상예술학회(1982년 9월 22일 창립)가 창립되었다. 이후 1983년 3월 30일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가 창립되었다.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는 특수 연령군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만든 최초의 학회로 의의가 있다. 이어서 대한사회정신의학회가 1984년 10월 12일 창립되었다. 이어 생물정신학 및 정신약물학에 관심있는 전문가들이 이 분야의 학회

를 창립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1월 21일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생물정신의학연구회(이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로 개칭)가 창립되었으나 당시는 연구회로 결성되었다. 이후 대한정신약물학회(1985년 2월 28일 창립)와 대한생물정신의학회(1985년 5월 3일 창립)가 차례로 창립되어 현재 한국의 정신약물학과 생물정신의학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후에 한국여성정신의학회(1986년 1월 10일 창립), 대한최면치료학회(1987년 10월 7일), 한국임상성학회(1988년 7월 7일 창립), 한국수면학회(1990년 3월 23일 창립),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1991년 5월 20일 창립), 대한법정신의학회(1992년 6월 4일 창립), 한국정신신체의학회(1992년 6월 20일 창립), 대한수면의학회(1993년 7월 2일 대한수면-정신생리학회로 창립), 대한노인정신의학회(1994년 4월 8일 창립), 한국중독정신의학회(1996년 4월 27일 창립),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1997년 9월 26일 창립)이 차례로 창립되어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산하 연구학회로 등록되었다. 이 이후에는 질병 단위의 연구학회가 창립되기 시작하였다. 대한정신분열병학회(1999년 5월 23일)를 시작으로 대한우울조울병학회(2001년 6월 23일 창립), 대한불안장애학회(2004년 9월 18일)가 창립되었다. 1999년 창립된 대한정신분열병학회의 경우

Table 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산하 연구학회 현황 및 학술지 발간

연구 학 회	창립연월일	공식 학술 잡지	비 고
한국정신치료학회	1974.2.19	정신치료	
한국분석심리학회	1978.4.19	심성연구	
한국정신분석학회	1980.5.6	정신분석	
한국임상예술학회	1982.9.22	임상예술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983.3.30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대한사회정신의학회	1984.10.12	사회정신의학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1985.1.21	생물치료정신의학	2004년 학진 등재 후보
대한정신약물학회	1985.2.28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002년 학진 등재 후보
대한생물정신의학회	1985.5.3	생물정신의학	
한국여성정신의학회	1986.1.10	여성정신의학	
대한최면치료학회	1987.10.7		
한국임상성학회	1988.7.7		
한국수면학회	1990.3.23	수면의학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1991.5.20	정신병리	
대한법정신의학회	1992.6.4		
한국정신신체의학회	1992.6.20	정신신체의학	
대한수면의학회	1993.7.2	수면·정신생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994.4.8	노인정신의학	
한국중독정신의학회	1996.4.27	중독정신의학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1997.9.26		
대한정신분열병학회	1999.5.23	정신분열병클리닉	
대한우울조울병학회	2001.6.23	우울조울병	
대한불안장애학회	2004.9.18		

Table 2. 연구학회 평가안에 대한 각 연구학회의 의견

학 회	취 지	평 가	기 준	통폐합	비 고
대한정신약물학회	동의	필요	-	-	새로 생기는 학회부터 억제 중복 임원 감점
대한생물정신의학회	동의	필요	-	-	-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동의	필요	필요	-	유사분야 공동학회 개최
정신분열병학회	동의	필요	필요	필요	-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동의	필요	필요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동의	필요	필요	필요	의종의 제도
정신분석학회	동의	필요	조정	-	회비납부회원, 국제학회 배점증가
한국분석심리학회	동의	필요	조정	-	지나치게 생물정신의학중심평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동의	필요	-	-	인종의 제도
대한사회정신의학회	동의	-	-	-	욕심 때문에 통폐합어려움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동의	-	-	반대	-
한국수면학회	동의	필요	-	필요	-
대한수면의학회	동의	필요	-	필요	-

* : 위의 의견은 2004년 4월 24일 경주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된 “학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 : 연구학회의 현황 및 장기발전방향”에서 나온 각 연구학회의 의견을 요약한 것임

평생회비제도를 연구학회 중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켰다.

현재 23개 연구학회 중에서 9개 학회가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세부전문의 내과계 학회로 분류됨)로 가입되어 있다. 9개 학회는 한국정신치료학회, 한국정신분석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생물정신의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사회정신의학회이다(Table 1).

학회의 기능 중 공식학술잡지의 발간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23개의 연구학회 중 78%인 18개 연구학회에서 공식학술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어 발간의 횟수, 논문의 질, 심사제도의 확립, 정시 발간 등 학술잡지의 잣대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 18개 연구학회 학술지 중 현재 대한정신약물학회지와 생물정신의학 만이 한국학술재단에서 인정하는 후보학술지로 등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002년 후보잡지로 등재되어 내년도 정식학술지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대한정신약물학회는 2005년 부터는 연 6회 발간하여 최신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게재할 수 있게 되었다. 생물정신의학도 2004년부터 후보학술잡지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학회 산하 연구학회는 향후 학술잡지의 발간과 잡지의 질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구학회 평가 기준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산하에는 23개 연구학회가 등

록되어 있으며 향후 그 수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학회와 연구학회 간의 유기적 기능적 관계를 정립하고, 연구학회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학회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연구학회 평가 기준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평가기준은 2003-2005회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기획위원회 내에 연구학회 발전 기획팀이 구성되어 “연구학회 평가기준”시안을 만들었다. 이 평가 시안은 대한의학회에서 학회평가안을 모체로 하여 우리 학회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2004년 4월 24일 본 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학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 : 연구학회의 현황 및 장기 발전 방향”에서 각 연구학회 대표가 참석하여 이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이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학회 대표 중 대부분이 연구학회의 평가 취지에는 동의하였으며 실제 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는 연구학회에 따라 이견이 있었다(Table 2). 이 후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과 각 연구학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2005년 6월 열린 기획위원회 워크샵에서 최종 시안을 완성하였다.

여기서 제시되는 연구학회 평가 시안은 현재 설립되어 활동 중인 연구학회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수한 활동을 하는 학회를 지원하여 향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산하 연구학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학회 평가 시안은 첫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학회 산하 연구학회 간의 유기적 기능적 관계를 정립하고, 둘째, 연구학회 간의 건전한 경쟁유도로 연구학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연구학회 평가 시안의 세부내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연구학회 평가는 크게 3분야로 첫째, 학술활동, 둘째,

Table 3. 연구학회 평가 시안 (총점 200점)

학술활동 (110)	1. 전국규모의 학술대회
	가. 학술대회발표연제수 (포스터포함) - 40편이상/년 (40) - 20-39편/년 (30) - 20편미만 (20)
	나. 발표논문 심사제도 - 있다 (5) - 없다 (0)
	다. 학술대회 참가자수 (준회원포함) - 회원수의 50% 이상 (15) - 회원수의 25-49% (10) - 회원수의 25% 미만 (5) (전체 참가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상기 점수의 50% 만 인정)
국내학술활동 (85점)	2. 연수교육, 지역별 집담회, 심포지움, 워크샵, 패널개최 1회 개최시 5점 기본 인정 (추가 1회 개최 당 2.5점) (15)
	3. 연구비 지급제도 (5)
국제학술활동 (25점)	4. 우수논문에 대한 포상제도 (5)
	조청강의활동 : 각 연제당 3점 (15) 국제학술대회 유치 개최 (10)
학회지발간 (70)	년 6회 이상 (30) 년 4-5회 (20) 년 2-3 회 (10) 년 1회 (0) *정시발행 (발행일+10일)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 인정
	있다 : 2인 이상 심사위원 (10)
	세계논문 심사제도 있다 : 1인의 심사위원 (5) 없다 : (0)
	학술진흥재단 또는 코리아 메드 등재 (각 5점) (10) Index Medicus, SCL, SCL expanded 등 등재 (각 10점씩) (20)
학회운영 및 회원 수 (20)	홈페이지와 회원관리의 전산화 (7) 학회사무실보유 또는 상근직원채용 (3) 회원수 (회비납부회원에 한함) -120명 이상 (10) 70-120 (5) 70명 미만 (0)

* : 괄호 안 점수는 해당 항목의 최대 점수임

학술지 발간, 셋째, 학회 운영 및 규모이다. 전체 점수는 총 점 200점으로 학술활동 110점, 학술지 발간 70점, 학회 운영 및 회원수 2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활동

학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술활동이며 따라서 전체평가 점수 중 55%인 110점이 학술활동에 할당되었다. 학술활동 110점 중 85점은 국내학술활동, 25점은 국제학술활동에 배정되었다. 전국규모의 학술대회 개최에 60점이 배정되었다.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의 평가는 주로 양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며 질적인 면은 발표논문 심사제도의 유무(5점)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질적인 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일부 연구학회에서 제기되었다. 본 위원회에서 질적 평가 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이번 기준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학술대회 참가자수를 평가기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논

란이 있었으나 전국적인 학술대회라면 참가회원의 수도 중요한 평가기준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학회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비 지급이나 포상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학술지 발간

학회의 기능 중 학회지의 발간은 매우 중요하다. 전체 200 점 중 35%에 해당하는 70점이 학회지 발간에 배정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학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학문 분야 특성상 학회지 발간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여러차례의 의견 조율을 거친결과 역시 학회의 얼굴은 학술지이며 어떤 형태로든 정기적인 학술잡지를 발간하는 것은 학회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학회지에 대한 평가는 이미 한국학술진흥재단 주도로 시행되어 왔으며 본 평가시안에는 연간 발간 횟수 및 정시발간 여부, 게재논문 심사제도, 주요 색인에 등재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학회운영 및 규모

학회는 일정수준의 규모와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0점 중 10%에 해당하는 20점을 배정하였다.

이상의 연구학회 평가 기준은 주로 체제나 양적인 면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 질적인 면에 대한 평가는 향후의 과제라도 생각된다. 우선 학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학회 평가 기준이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신치료 분야의 연구학회의 경우는 다른 분야의 학회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점수의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추후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학회 평가의 결과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유기적 기능적 관계 실행의 기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의 연구 과제이기는 하나 일정수준(예, 전체 총점이 60점 이상)에 오른 연구학회에게 본 학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을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본 학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득에는 연수평점 부여, 학술지의 인정, 전공의 교육 연수교육 인정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증학회와 비인증학회로 구분될 수도 있을 것이나,³⁾ 이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회원수나 기능면에서 매우 규모가 큰 학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학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학술활동에 치중에 오던 기능에서 탈피하여 회원의 권익보호, 장기 학회 발전 기획 등 다른 기능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할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학회의 학술활동 기능 중 많은 부분은

점차 연구학회로 이관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본 학회와 연구학회 간의 기능적, 유기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학회는 연구학회의 기능 및 활동을 평가하고 학회의 질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일 본 학회와 연구학회, 관련 연구학회 간의 유기적인 기능적인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학술활동은 매우 중복되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연구학회의 성격상 본 학회와의 연계를 원치 않는다면 이번 평가의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될 수 있다. 즉, 그러한 연구학회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학회와 연구학회 간의 기능적 유기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연구학회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이들 연구학회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2003~2005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기획위원회에서 1년여에 걸쳐 마련한 연구학회 평가 시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평가 시안이 연구학회의 발전방향에 지표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수정을 하여 더욱 좋은 평가기준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연구학회.

REFERENCES

- 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의학회 50년사.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1995.
- 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보. 20호.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04.
- 3) 이영식, 오강섭, 노경선, 김찬형, 한진희, 이민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대회의 과거, 현재, 미래. 신경정신의학 2003;42: 421-433.